

News

“우리금융 잔여 지분 올해는 팔아야”...속도 내는 공자위

조선비즈

공자위는 외환위기 대응책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남아있는 우리금융 지분 17%를 2022년까지 분산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자위는 우리금융의 낮은 주가가 언제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올해만큼은 매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

지금이 바닥...시중은행, 항공기금융 시동 건다

e대한경제

코로나19 확산이 백신 접종 등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해 향후 수익성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이란 판단. 국내은행들, 항공기금융 투자 재개
하나은행이 금융주선권을 부여받아 복수의 국내 시중은행들이 9억달러 규모의 항공기금융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모집을 진행 중

예·적금 깨서 증시 올라타자...지난달 은행서 16조 증발

한국경제

2월 1일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한달새 예금, 적금이 6.2조 가량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새해 증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은행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들 '중금리 대출' 시장 경쟁 예고

한국경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포용할 수 있는 추가 상품을 출시해 올해 중·저신용자 전용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할 계획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계획보다 많은 1.조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 2019년 9,8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

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하고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
종투사의 부동산 및 SPC에 대한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벤처대출 업무 허용,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완화를 계획

보험설계사 전용 앱 '토스보험파트너' 가입자 2만명 돌파

연합뉴스

비바리퍼블리카는 보험설계사 영업용 앱 '토스보험파트너'에 가입한 설계사가 출시 6개월만에 2만명을 넘어 국내 최대 설계사 플랫폼이 됐다.
6개월 동안 토스 사용자가 토스보험파트너 등록 설계사에게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누적 22만건에 달하며 하루 평균 5천여건의 상담이 발생

신지급여력제도 대비 부동산 내다 파는 보험사들

한국금융신문

보험사, 오는 2023년 도입 예상 신지급여력제도(K-ICS·릭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본금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부동산 매각 러쉬를 단행
현행 RBC 제도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위험 계수를 업무용도 6%, 투자용도는 9%로 보고 있으나, K-ICS에서는 25%까지 보고 있기 때문

보험개발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보험 개발 추진

매일일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평가 모델 개발과 감염병 대응 보험상품의 개발이 추진된다.
보험개발원: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난 위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보험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